

보도시점 2025. 10. 30.(목) 14:00
10. 31.(금) 조간

배포 2023. 10. 30.(목) 09:00

우리 한우, 아랍에미리트로 간다.

- 10.30일부터 인천공항·항만을 통해 냉장·냉동 한우고기 초도물량 약 1.5톤 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30일 농협중앙회에서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고기의 선적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참석)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 전원석 황성케이씨 대표 등

UAE에 최초로 한우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정식으로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총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UAE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소고기 소비량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미국에서의 수입 비중이 높고 고품질 소고기 수요가 커 향후 한우 수출에 있어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UAE 내에서 한우와 가장 가격, 품질이 비슷한 일본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한우와 같은 고품질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UAE

** 일본의 UAE 수출 실적 : ('19) 24톤 → ('21) 79톤 → ('23) 879톤

한편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외 한우 잠재 고객 발굴도 병행한다. 1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체험단을 모집, '미식여행' 및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우의 맛을 널리 알리고, 관광업계와 협력하여 1인당 소비액이 높은 관광객 대상 한우 체험·소비 투어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 홍보 체계 : 「체험단 모집 → 한우 맛 체험 → 개인 SNS 등에 한우 게시물 등록」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기념식에서 “UAE 수출은 단순히 한우 수출국이 하나 확대된 것이 아니라, 19억 할랄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며 “한우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현지 홍보 행사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검역 협상을 통한 신규 시장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실 축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11)
		담당자	사무관	김철기 (044-201-2315)

